

# 커버드콜 분배금 재원은 국내 공시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커버드콜 월배당 상품의 분배금 재원과 공시

국내에 상장된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는 2026년 5월 말 50종목, 순자산 24조 5,490억 원이다. 2022년 말 1,223억 원에서 200배가 됐다. 매달 돈이 들어오고, 연 10%에서 20%대로 표시되는 분배율이 붙어 있다.

미국의 분배 자원 통지는 순투자이익, 실현 자본이득, 추정 자본환급 등으로 재원을 나눠 알린다. 한 나스닥100 커버드콜 상품의 2024 회계연도 통지는 분배금의 97.06%를 추정 자본환급으로 표시했다. 이 값은 통지 시점의 추정치이며 최종 세무 분류와 달라질 수 있다.

분배율은 총수익률이 아니다. 투자자는 분배금의 추정 재원과 기준가격 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발행일          | 자료 기준일       | 분량     |
|--------------|--------------|--------|
| 2026년 8월 13일 | 2026년 8월 13일 | 본문 18쪽 |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투자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세 줄 요약

### 무엇을 물었나

커버드콜 상품의 분배금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며 투자자가 그 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가.

### 무엇을 알아냈나

미국의 분배 재원 통지는 순투자이익, 실현 자본이득, 추정 자본환급 등으로 재원을 나눠 알린다. 한 나스닥100 커버드콜 상품의 2024 회계연도 통지는 분배금의 97.06%를 추정 자본환급으로 표시했다. 이 값은 통지 시점의 추정치이며 실제 현금의 물리적 출처나 최종 세무 분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내에는 이에 대응하는 표준화된 지급별 공시가 확인되지 않았다.

###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분배율 대신 총수익률을 본다. 같은 운용사의 같은 기준일 지수 상품과 나란히 놓고 1년 수익률을 비교하면, 매달 받은 돈까지 포함한 결과가 한 줄로 나온다.

### 한눈에

미국의 한 나스닥100 커버드콜 상품은 2026년 6월 말 분배율이 11.52%, 같은 날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수익률이 0.02%였다. 두 숫자를 같은 회사가 같은 화면에 함께 적어 둔다.

### 이 보고서 읽는 법

- **분배율과 수익률은 다른 값이다.** 분배율은 받은 돈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고, 수익률은 받은 돈에 가격 변동을 더한 값이다. 이 보고서는 둘을 섞지 않는다.
- 상품 이름은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적었다. **특정 상품의 매매를 권하거나 말리는 자료가 아니다.**
- 수익률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분배금을 다시 넣었다고 가정한 총수익률**이고 세금은 빠지 않은 값이다.
- 국내 상품 비교는 **같은 운용사가 같은 기준일에 같은 방식으로 낸 자료**끼리만 건넸다.
- 일부 숫자는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를 따랐다. 해당 숫자에는 각주를 달았다.
-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

## 차례

|      |                          |    |
|------|--------------------------|----|
| 1장   | 매달 돈이 들어오는 상품이 24조 원이 됐다 | 3  |
| 2장   | 분배금 재원의 세 가지 분류          | 4  |
| 3장   | 알리는 나라와 알리지 않는 나라        | 6  |
| 4장   | 누가 얼마나 겪는가               | 9  |
| 5장   | 현재 제도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 12 |
| 6장   | 무엇을 하면 되는가               | 14 |
| 부록 가 | 용어 풀이                    | 16 |
|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 17 |

---

---

### 1장

## 매달 돈이 들어오는 상품이 24조 원이 됐다

3년 반 만에 200배가 됐다. 그동안 무엇이 함께 커졌는지 본다.

|                                                              |                                               |                                                             |
|--------------------------------------------------------------|-----------------------------------------------|-------------------------------------------------------------|
| <b>24.5조 원</b><br>국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 순자산<br>2026년 5월 말 · 자본시장연구원 | <b>50종목</b><br>같은 시점 상장 종목 수<br>2022년 말에는 6종목 | <b>200배</b><br>2022년 말 대비 순자산 증가<br>1,223억 원 → 24조 5,490억 원 |
|--------------------------------------------------------------|-----------------------------------------------|-------------------------------------------------------------|

주식을 사 두고 그 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남에게 판다. 권리를 산 쪽은 값을 치른다. 이 값이 옵션 프리미엄이다.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 배당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모아 매달 나눠 주는 상품이 커버드콜 월배당 상장지수펀드다.

대신 조건이 붙는다. 주식이 정해진 값을 넘어 오르면 넘는 몫은 권리를 산 쪽 것이 된다. 떨어질 때는 그대로 떨어진다. **오르는 쪽만 잘리고 내리는 쪽은 그대로다.** 매달 받는 돈은 이 조건을 받아들인 대가다.

국내에 이 상품이 처음 6종목, 1,223억 원 규모로 있던 때가 2022년 말이다. 2026년 5월 말에는 50종목, 24조 5,490억 원이 됐다. 3년 반 만에 200배다.<sup>1</sup>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전체로 넓히면 2026년 1월 기준 161종목, 58조 9,300억 원이다.<sup>2</sup> 전체 상장지수펀드 시장은 2026년 6월 말 512조 4,000억 원이다.<sup>3</sup>

## 가장 큰 상품 하나가 5조 원을 넘는다

규모가 가장 큰 국내 커버드콜 상품은 코스피200을 기초로 주 단위 옵션을 파는 상장지수펀드다. 2026년 7월 말 순자산이 5조 5,208억 원이다. 상장한 지 1년 7개월 됐다.<sup>4</sup>

상품마다 목표를 정해 두는 방식도 다르다. 기초지수 이름에 목표 프리미엄을 연 15%, 연 10%처럼 박아 둔 상품이 있고, 연간 분배 한도를 20%나 15%로 정해 둔 상품이 있다. 목표를 따로 밝히지 않는 상품도 있다.<sup>5</sup>

여기서 이 보고서의 질문이 나온다. **매달 들어오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상품 설명서에는 옵션 프리미엄과 배당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옵션 프리미엄과 배당을 합친 금액보다 분배금이 많으면, 모자란 뭇은 어디서 채우는가.

**매달 들어오는 돈은 분명한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커버드콜

주식을 사 두고, 그 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남에게 팔아 돈을 받는 방법이다. 받은 돈은 확정되지만, 주식이 그 값을 넘어 오르면 넘는 뭇은 권리를 산 쪽이 가져간다.

###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가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 이름에 '커버드콜'이 들어 있는지 본다. 들어 있으면 이 보고서가 다루는 상품이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보유 종목 목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름만 확인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사거나 팔 일을 정할 필요는 없다.

## 2장

## 분배금 재원의 세 가지 분류

미국 통지의 자원 분류와 국내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한다.

미국의 분배 자원 통지는 금액을 순투자이익, 실현 자본이득, 자본환급 등으로 분류한다. 옵션 프리미엄은 거래 결과와 세무 처리에 따라 소득이나 자본이득 등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옵션 프리미엄·배당·원금’이라는 세 항목만으로 재원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세 번째를 "펀드의 소득과 실현이익 등을 초과해 지급되는 부분"으로 정의하고 자본 환급이라 부른다.<sup>6</sup>

앞의 둘은 벌어서 주는 돈이다. 세 번째는 벌어서 주는 돈이 아니다. 맡긴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 자본환급 추정치는 왜 발생하는가

구조를 보면 이유가 나온다. 이런 상품은 대개 **정해진 규칙대로** 분배한다. 순자산의 1%를 매달 준다거나, 받은 옵션 프리미엄의 절반을 준다거나, 연 15%를 목표로 나눠 준다는 식이다.

규칙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 벌어들인 돈은 달마다 다르다. 시장이 조용하면 옵션 값이 싸져 받는 돈이 줄어든다. 그래도 규칙대로 준다. 그러면 모자란 몫은 갖고 있던 자산에서 채운다. 그것이 원금이다.

미국의 한 운용사는 자사 나스닥100 커버드콜 상품을 이렇게 설명한다. "받은 옵션 프리미엄의 절반을 매달 분배하되 순자산의 1%를 상한으로 한다." 세법상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스스로 적었다.<sup>7</sup>

국내 운용사도 같은 설명을 남긴 적이 있다. 한 운용사는 해외 고분배 상품을 다른 안내글에서 "최상의 경우 10~12%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나머지 분배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자본금에서 나온다"고 답했다.<sup>8</sup>

## 국내 상품은 재원을 어떻게 적고 있는가

국내 운용사들도 재원을 아예 밝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밝히는 방식이 유형 수준에 머문다.

한 운용사는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상품의 과세 안내에서 "주된 분배금 재원은 배당 수익과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배당은 과세되고 옵션 프리미엄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배당이 먼저 분배되므로 배당이 몰리는 달에는 과세 비중이 오르고 배당이 없는 달에는 비과세 재원이 증가 된다는 것까지 밝힌다.<sup>9</sup>

다른 운용사는 상품 설명에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과 구성 종목 배당을 재원으로"라고 적고, 분배금 옆에 주당 과세표준액을 함께 올린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말 분배금이 235원인데 주당 과세표준액은 5원이다.<sup>10</sup>

**벌어들인 돈보다 많이 나눠 주면, 모자란 몫은 원금에서 채운다.**

### 분배금과 분배율

상장지수펀드가 보유자에게 나눠 주는 돈이 분배금이다. 이를 가격으로 나눈 값이 분배율이다. 분배율은 받은 돈만 세고 가격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세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가장 앞선 형태다. 그런데 둘 다 **이번 달 분배금 가운데 원금이 얼마인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앞의 것은 상품군 전체에 대한 설명이고, 뒤의 것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일 뿐이다.

연구소는 국내 운용사 네 곳의 상품 페이지와 분배금 공지를 확인했다. 월별 분배금마다 옵션 프리미엄 얼마, 배당 얼마, 원금 얼마를 금액으로 나눠 적은 곳은 없었다.<sup>11</sup>

####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가진 상품의 분배금 공지를 열어 재원을 나눈 표가 있는지 본다. 금액이 아니라 설명만 있다면 그것이 지금의 수준이다.**

확인하는 곳 · 운용사 홈페이지의 분배금 공지, 상품 페이지

- 2 **분배금과 함께 적힌 주당 과세표준액을 본다. 분배금보다 훨씬 작으면 과세되지 않는 재원이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확인하는 곳 · 같은 화면. 회사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과세표준액이 작다고 해서 곧바로 원금을 돌려받는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옵션 프리미엄도 과세되지 않는 재원이다.

### 3장

## 알리는 나라와 알리지 않는 나라

같은 구조의 상품인데 받는 사람이 아는 것이 다르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본다.

|                                                                       |                                              |                                                           |
|-----------------------------------------------------------------------|----------------------------------------------|-----------------------------------------------------------|
| <b>97.06%</b><br>미국 나스닥100 커버드콜 상품의<br>분배금 중 원금<br>2024 회계연도 · 운용사 통지 | <b>11.52%</b><br>같은 상품의 분배율<br>2026년 6월 말 기준 | <b>0.02%</b><br>같은 날,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수익률<br>미국 표준 방식으로 계산한 값 |
|-----------------------------------------------------------------------|----------------------------------------------|-----------------------------------------------------------|

### 미국은 매달, 별도 서면으로, 세 갈래로 나눈다

미국 투자회사법에는 1940년부터 들어 있는 규정이 있다. 펀드는 벌어들인 순이익 밖의 재원에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재원을 충분히 밝히는 서면 진술서가 그 지급에 동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sup>12</sup>

미국은 원금에서 나간 몫을 그 달에 알리게 한다. 한국은 그런 몫이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는다.

이 예외를 어떻게 지키는지는 하위 규정이 정해 됐다. 규정 이름부터 "배당 지급에 동반되어야 하는 서면 진술서"다. 요구하는 내용은 셋이다.

첫째,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한다. 다른 안내문에 끼워 넣지 않는다. 둘째, **주당 얼마가 어느 재원에서 나왔는지** 명확히 적는다. 셋째, 재원은 세 갈래로 나눈다. 순투자이익, 자산을 팔아 남긴 이익, 그리고 납입자본이다.<sup>13</sup>

규정 안에 목적도 적혀 있다. "증권 보유자에게 배당금이 어느 재원에서 나오는지 충분히 알리기 위한 것"이며 이 취지에 따라 해석한다는 문장이다.<sup>13</sup> 감독당국은 나중에 이 목적을 더 풀어 썼다. 투자자가 "실제로는 주주 자본이나 자본이익에서 분배금이 나오는데도 펀드가 투자수익을 내고 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sup>14</sup>

## 그 통지가 드러낸 것

한 운용사의 나스닥100 커버드콜 상품은 2024 회계연도에 주당 3.5783달러를 분배했다. 당시 19(a) 통지는 순투자이익을 0.1051달러, 추정 자본환급을 3.4732달러로 표시했다. 추정 자본환급 비율은 **97.06%**였다.<sup>15</sup>

같은 방식으로 표시된 추정 자본환급 비율은 S&P500 커버드콜 상품 90.45%, 러셀2000 커버드콜 상품 93.15%였다.<sup>15</sup> 통지문은 이 금액이 추정치이고 세무 보고를 위한 최종 분류가 아니며, 자본환급을 수익률이나 소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한다.<sup>16</sup>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커버드콜 상품 전체의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미국 시장에서 다른 운용사의 대형 월배당 상품 둘은 이 통지 대상이 아니다. 벌어들인 소득 안에서 분배하고 있어 통지 요건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다.<sup>17</sup>

즉 같은 '**월배당**'이라는 이름 아래 **재원이 전혀 다른 상품이 함께 있다**. 미국에서는 그 차이가 통지로 드러난다.

## 두 숫자를 나란히 보게 만드는 장치

미국에는 장치가 하나 더 있다.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 수익률 표시다. 최근 30일 동안 보유 증권이 실제로 낸 이자와 배당에서 비용을 뺀 뒤 연 단위로 환산한 값이다. 옵션을 팔아 받은 돈이나 원금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sup>18</sup>

이 표준이 왜 생겼는지도 감독당국이 밝혀 됐다. "투자자가 비슷한 펀드들의 수익률을 더 쉽게 견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sup>18</sup> 여기에 더해 광고에 수익률을 적으면 총수익률을 반드시 함께 적게 했다.<sup>19</sup>

### 추정 자본환급

펀드가 벌어들인 소득과 실현이익을 넘겨 지급한 금액이다. 새로 생긴 이익이 아니라 말긴 돈이 돌아온 것이므로, 그만큼 남은 자산이 줄어든다.

결과가 앞에서 본 두 숫자다. 2026년 6월 말 그 나스닥100 커버드콜 상품의 분배율은 11.52%, 같은 날 표준 방식으로 계산한 수익률은 0.02%였다. 두 숫자가 같은 회사 같은 화면에 함께 올라와 있다.<sup>20</sup> 어느 쪽이 벌어서 나온 돈인지 보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

#### 깊이 보기 · 가

### 규칙대로 주면 소득과 어긋난다

앞의 상품은 분배 규칙을 이렇게 정해 뒀다. 나스닥100에 콜옵션을 팔아 받은 프리미엄의 절반을 매달 분배하되, 순자산의 1%를 넘지 않게 한다.

2022년 세무자료에서는 주당 분배금 2.1881달러 가운데 1.7837달러가 자본환급으로 최종 분류됐다. 당시 주주별 세무 처리는 각자의 취득원가와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본환급은 일반적으로 주주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줄이고,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차익으로 처리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19(a) 통지의 추정치와 연말 최종 세무 분류를 구분하고, 분배금만이 아니라 총수익률을 함께 봐야 한다.

### 한국에는 무엇이 없는가

한국에는 이 두 장치가 모두 없다.

첫째, 분배금 지급 때마다 재원을 나눠 알리는 통지가 없다. 앞서 본 대로 유형 수준의 설명은 있지만 금액으로 나눈 통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표준화된 수익률 표시가 없다. 분배율을 계산하는 방식조차 회사마다 다르다. 최근 한 달 분배금을 열두 배 한 값, 1년 누적 분배금을 기준으로 나눈 값, 그달 분배금만 적는 방식이 함께 쓰인다. 같은 시기에 한 회사는 "월 분배율 1.93%"로, 다른 회사는 "연 환산 분배율 18.10%"로 적었다.<sup>21</sup>

자본시장연구원은 2026년 6월 보고서에서 국내 상품의 표시 기준이 제각각이라 같은 기준으로 견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분배 재원의 명확한 공시**와, 분배율 산식과 총수익률을 일관된 기준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제공 방식을 제안했다.<sup>6</sup>

규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 7월 감독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냈다.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약정된 수익이 아니며,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한 대가일 뿐 추가 수익이 아니라는 내용이다.<sup>22</sup> 두 달

뒤에는 상품명에서 '+15%' 같은 표기를 빼고 '타겟커버드콜'로 이름을 통일하게 했다.<sup>23</sup>

다만 이 조치는 이름을 고쳤을 뿐 재원을 밝히게 하지는 않았다. 지금도 상품이 따라가는 기초지수 이름에는 목표 프리미엄 15%가 그대로 들어 있다.

####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상품에 적힌 분배율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값인지 확인한다. 한 달치를 열두 배 한 값이라면 그달 사정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

확인하는 곳 · 운용사 상품 페이지의 분배율 옆 주석, 없으면 고객센터

- 2 미국에 상장된 같은 유형 상품을 보고 있다면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재원 통지를 찾아본다. 원금 몫이 숫자로 적혀 있다.

확인하는 곳 · 해당 운용사 홈페이지의 19a-1 notice 또는 tax documents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원금이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나쁜 상품이라 볼 일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총수익률이다.

#### 4장

## 누가 얼마나 겪는가

매달 받은 돈까지 넣어 계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

|                                                                           |                                                  |                                                                 |
|---------------------------------------------------------------------------|--------------------------------------------------|-----------------------------------------------------------------|
| <b>8.45%</b><br>미국 나스닥100 커버드콜 상품의<br>10년 연평균 총수익<br>2025년 10월 말 · 감사 보고서 | <b>19.86%</b><br>같은 기간 나스닥100 지수<br>배당을 다시 넣은 기준 | <b>31.30%p</b><br>코스피200 쌍의 1년 총수익 격차<br>2026년 7월 말 · 같은 운용사 자료 |
|---------------------------------------------------------------------------|--------------------------------------------------|-----------------------------------------------------------------|

분배율이 높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매달 받은 돈까지 모두 더해 계산해야 결과가 나온다. 그것이 총수익률이다.

매달 받은 돈을 모두 더해  
넣어도, 네 쌍 모두 지수 쪽이  
앞섰다.

#### 같은 회사,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견주면

국내 자료로는 한 운용사가 같은 기준일에 같은 방식으로 낸 월간 자료를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커버드콜 상품과, 같은 기초자산을 그냥 따라가는 상품을 나란히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수익률

가격이 오르내린 몫과 받은  
분배금을 모두 더해 계산한  
수익률이다. 분배금을 다시  
사들였다고 가정한다.  
분배율만 보면 알 수 없는  
결과가 여기서 드러난다.

<표 1> 매달 받은 돈까지 더해도 네 쌍 모두 지수 쪽이 앞섰다

같은 운용사·같은 기준일(2026년 7월 말)·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1년 총수익률 (단위: %)

| 기초자산     | 커버드콜 상품 | 지수를 따라가는<br>상품 | 차이     | 6개월 차이 |
|----------|---------|----------------|--------|--------|
| 코스피200   | 110.25  | 141.55         | -31.30 | -4.97  |
| 나스닥100   | 16.42   | 24.11          | -7.69  | -6.27  |
| S&P500   | 19.89   | 21.09          | -1.20  | -0.24  |
| 미국배당다우존스 | 30.87   | 31.46          | -0.59  | -0.28  |

주: 1) 분배금을 다시 넣었다고 가정한 값이고 세금은 빼지 않았다. 차이는 백분율포인트다.  
2) 상품마다 상장일과 옵션 매도 방식이 달라 이 표는 구조의 방향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다.  
자료: 삼성자산운용 월간 상품 자료(2026년 7월 31일 기준) 8종을 정리.

네 쌍 모두 커버드콜 쪽이 낮았다. 그리고 기초자산이 많이 오른 쌍일수록  
격차가 컸다. 1년 사이 141.55% 오른 코스피200에서는 31.30%포인트  
벌어졌고, 31.46% 오른 미국배당다우존스에서는 0.59%포인트에 그쳤다.<sup>24</sup>

이것이 1장에서 본 구조의 결과다. 오르는 쪽이 잘리니 많이 오를수록 잘리는  
몫이 크다. 매달 받은 돈은 그 잘린 몫의 대가이지 덤이 아니다.

기간을 늘리면

1년은 짧다. 국내 상품은 대부분 상장한 지 2년 안팎이라 긴 기간 자료가 없다.  
미국 상품에는 있다.

앞서 본 나스닥100 커버드콜 상품이 감독당국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10년 연평균 총수익이 8.45%다. 같은 기간 나스닥100  
지수는 19.86%였다. 해마다 11.41%포인트씩 뒤졌다.<sup>25</sup>

S&P500 커버드콜 상품은 10년 7.50%로 지수 14.64%에 7.14%포인트 뒤졌다. 러셀2000 커버드콜 상품은 설정 이후 4.42%로 지수 8.71%에 4.29%포인트 뒤졌다. 세 상품 모두 자신이 따라간다고 밝힌 커버드콜 전략지수보다도 낮았다.<sup>25</sup>

1,000만 원을 10년 두었다고 하면 연 8.45%는 약 2,251만 원, 연 19.86%는 약 6,128만 원이 된다. 3,877만 원 차이다.<sup>26</sup>

## 누가 사는가

한 증권사가 6개월 동안의 개인 매매를 집계한 자료가 있다. 국내 최대 커버드콜 상품을 산 사람 가운데 50대가 35.1%, 40대가 26.8%, 60대 이상이 16.1%였다. 40대 이상이 약 78%다. 같은 기간 지수를 그냥 따라가는 상품에서는 20대와 30대가 약 30%였다.<sup>27</sup>

설문자료에서는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고연령층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배금 지급 때 기준가격이 조정되므로 생활비로 사용하려면 분배금과 남은 투자자산의 총수익률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세금은 원금을 걸러 내는데 공시는 그렇지 않다

세금 쪽에는 이미 장치가 있다.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되는데, 과세 대상은 분배금과 과세표준 증가분 가운데 **작은 쪽**이다.<sup>28</sup> 벌지 않은 뭍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은 여기에 더해 옵션 프리미엄이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배금 235원에 주당 과세표준액이 5원인 경우가 나온다.<sup>10</sup>

정리하면 세금 계산에서는 벌어서 준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이 이미 갈린다. 그런데 그 계산 결과를 재원 공시로 바꿔 알려 주는 절차가 없다. **세무 목적으로는 구분하면서 투자자에게는 구분해 주지 않는다.**

##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가진 상품의 1년 총수익률을 확인하고, 같은 운용사의 같은 기초자산 지수 상품과 나란히 견준다.

확인하는 곳 · 운용사 홈페이지의 월간 상품 자료. 같은 기준일 자료끼리 비교한다

### 2 매달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고 있다면, 1년 전 대비 보유 좌수와 기준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본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보유 내역과 거래 내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수 상품보다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갈아탈 일은 아니다. 오르는 폭을 줄이는 대신 현금이 매달 필요한 사정이라면 다른 계산이 선다.

## 5장

# 현재 제도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2024년에 무엇을 고쳤고 무엇을 고치지 않았는지 나눠 적는다.

2024년에 두 가지가 바뀌었다. 7월 소비자경보로 분배율이 약정 수익이 아니라는 점이 공식 문서에 적혔고, 9월에는 상품명에서 목표 분배율 표기가 빠졌다. 그 뒤로 다섯 가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 하나. 재원을 알리는 절차가 없다

벌어들인 소득을 넘겨 분배할 때 그 사실과 금액을 알리게 하는 규정이 없다. 운용사가 자율로 밝히는 곳도 유형 수준에 그친다. 원금이 섞였는지 아닌지를 받는 사람이 판단할 근거가 없다.

## 둘. 분배율 계산 방식이 회사마다 다르다

한 달치를 열두 배 하는 방식과 1년 누적을 쓰는 방식이 같은 시장에서 함께 쓰인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느 방식으로 적느냐에 따라 표시되는 숫자가 달라진다. 상품 사이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름은 고쳤는데 재원은 그대로 가려져 있다.

### 셋. 표준화된 수익률 표시가 없다

미국에는 실제 소득만으로 계산하는 표준 수익률이 있어 분배율과 나란히 놓인다. 국내에는 이런 지표가 없다. 분배율 하나만 크게 적히고 그 옆에 견줄 숫자가 없다.

### 넷. 이름에서 뺀 숫자가 지수 이름에 남아 있다

2024년 조치로 상품명에서 '+15%' 같은 표기가 빠졌다. 그런데 그 상품이 따라가는 기초지수 이름에는 목표 프리미엄 15%가 그대로 들어 있고, 상품 페이지에도 그대로 적힌다. 상품명만 바뀐 셈이다.

### 다섯. 광고와 표시에 대한 후속 기준이 없다

2024년 9월 이후 분배율 표시나 광고에 관해 추가로 나온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사이 시장은 2024년 중반 3조 7,000억 원대에서 24조 원대로 커졌다.<sup>22</sup>

이 다섯의 공통점이 있다. 넷은 **숫자를 어떻게 적을지**에 관한 것이고, 첫째만 **무엇을 알릴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첫째가 정해지지 않으면 나머지 넷을 고쳐도 재원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상품이 따라가는 기초지수의 정식 이름을 확인한다. 목표 프리미엄 몇 퍼센트가 이름에 들어 있는지 보면 분배 규칙을 짐작할 수 있다.

확인하는 곳 · 운용사 상품 페이지의 기초지수 항목, 투자설명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목표 프리미엄이 높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 높을수록 원금이 섞일 여지가 커진다.

## 무엇을 하면 되는가

읽는 사람 / 금융회사 / 당국으로 나눈다. 이 보고서는 특정 상품을 권하거나 말리지 않는다.

### 읽는 사람이 할 일

#### 오늘 할 수 있는 것

- 1 분배율 대신 1년 총수익률을 본다. 매달 받은 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숫자다.  
확인하는 곳 · 운용사 홈페이지의 월간 상품 자료
- 2 같은 운용사의 같은 기초자산 지수 상품을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견준다. 구조가 만든 차이가 한 줄로 나온다.  
확인하는 곳 · 같은 자료의 다른 상품 편
- 3 분배율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주석을 읽는다. 한 달치를 열두 배 한 값이면 그달 사정에 좌우된다.  
확인하는 곳 · 상품 페이지의 분배율 옆 주석
- 4 분배금을 생활비로 쓰고 있다면 1년 전과 지금의 기준가를 함께 적어 둔다. 받은 돈과 줄어든 값을 같이 봐야 한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보유 내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금 팔지 말지를 정할 필요는 없다. 오르는 쪽을 줄이는 대신 매달 현금이 필요한 사정이라면 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대가가 얼마인지다.

받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적게 하는 일이 먼저다.

#### 총보수

운용사와 판매사 등이 1년 동안 떼어 가는 비용의 합이다. 국내 커버드콜 상품은 대체로 연 0.19%에서 0.50% 사이다. 수익률은 이 비용을 뺀 뒤의 값이다.

###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분배금마다 재원을 금액으로 나눠 적는다.** 옵션 프리미엄 얼마, 배당 얼마, 실현이익 얼마, 그 밖에 얼마를 주당 금액으로 적으면 된다. 세금을 매길 때 이미 재원을 갈라 계산하고 있으므로 아주 새로운 자료는 아니다.

**둘째, 분배율 옆에 총수익률을 함께 적는다.** 지금은 분배율만 크게 적히고 견줄 숫자가 없다. 같은 화면에 1년 총수익률을 두면 받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한다.

**셋째, 분배율 산식을 하나로 맞춘다.** 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으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업계가 스스로 맞추면 규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당국이 할 일

**첫째, 벌어들인 소득을 넘겨 분배할 때 그 사실과 금액을 알리게 한다.** 미국은 이 통지를 1940년에 만들어 지금까지 쓰고 있다. 별도 서면으로, 주당 금액으로, 재원을 나눠 적게 하는 방식이다. 옮겨 오는 데 새로운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분배율 표시 기준을 정한다.** 어떤 기간의 분배금을 어떤 값으로 나누어 적을지 하나로 정하고, 그 옆에 총수익률을 함께 적게 하면 된다. 자본시장연구원도 같은 취지를 제안했다.

**셋째, 상품명에서 뺀 숫자가 지수 이름으로 돌아오지 않게 한다.** 2024년 조치의 목적은 목표 분배율을 확정 수익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지수 이름과 상품 페이지에 같은 숫자가 남아 있으면 목적이 반쯤만 이뤄진다.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재원 공시를 도입할지, 분배율 표시 기준을 만들지에 관해 정해진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제안이 2026년 6월에 나온 상태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다. 하나는 운용사 가운데 한 곳이라도 분배금 재원을 금액으로 나눠 적기 시작하는지다. 다른 하나는 분배율 표시 기준이 업계 자율 규약이나 감독 지침으로 나오는지다. 둘 중 하나라도 생기면 나머지는 따라오기 쉽다.

## 부록 가 · 용어 풀이

### 상장지수펀드 (ETF)

여러 자산을 담은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거래소에 올린 상품이다.

### 커버드콜

주식을 사 두고 그 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남에게 팔아 돈을 받는 방법이다. 받는 돈은 확정되지만 주식이 그 값을 넘어 오르면 넘는 몫을 갖지 못한다.

### 콜옵션과 옵션 프리미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이고, 그 권리를 사는 쪽이 치르는 값이 옵션 프리미엄이다.

### 분배금

상장지수펀드가 보유자에게 나눠 주는 돈이다.

### 분배율

분배금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받은 돈만 세고 가격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세지 않는다.

### 총수익률

가격이 오르내린 몫과 받은 분배금을 모두 더해 계산한 수익률이다. 분배금을 다시 사들였다고 가정한다.

### 자본환급 (Return of Capital)

분배금 가운데 순투자이익과 실현 자본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붙는 분류다. 19(a) 통지의 금액은 추정치이며 최종 세무 분류와 달라질 수 있다.

### 목표 프리미엄 · 목표 분배율

해마다 이만큼을 나눠 주겠다고 미리 정해 둔 값이다. 약속한 수익이 아니라 목표다.

### 기초지수

상장지수펀드가 따라가겠다고 정해 둔 지수다. 커버드콜 상품은 옵션을 파는 규칙까지 지수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 과세표준액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분배금 가운데 과세되는 몫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쓴다.

### 총보수

운용사와 판매사 등이 1년 동안 떼어 가는 비용의 합이다. 수익률은 이 비용을 뺀 뒤의 값이다.

##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 자료 출처

1. 자본시장연구원, 심수연,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6-12호, 2026년 6월. [kcmi.re.kr](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ar=2026&zcd=002001016&zno=1920&cno=6785)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ar=2026&zcd=002001016&zno=1920&cno=6785](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ar=2026&zcd=002001016&zno=1920&cno=6785))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2. 삼성자산운용, KODEX 월간 상품 자료(2026년 7월 31일 기준) —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00,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미국나스닥100,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 미국S&P500,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 미국배당다우존스. [samsungfund.com](https://www.samsungfund.com) (<https://www.samsungfund.com/etf/product/list.do>)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3. 삼성자산운용,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 분배금 과세 관련 안내사항」, 2025년 4월 22일. [samsungfund.com](https://www.samsungfund.com) (<https://www.samsungfund.com/etf/lounge/notice-view.do?no=66733>)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4.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상품 페이지 및 연간 분배 내역. [investments.miraeasset.com](https://investments.miraeasset.com)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tigeretf/ko/distribution/annual/list.do>)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5. 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 사례로 알아보는 커버드콜 ETF 분배율」, 2025년 9월 8일. [investments.miraeasset.com](https://investments.miraeasset.com)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tigeretf/ko/insight/etf-insight/view.do?detailsKey=594>)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6. KB자산운용,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상품 페이지. [riseetf.co.kr](https://www.riseetf.co.kr) (<https://www.riseetf.co.kr/prod/finderDetail/44G3>)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7.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액티브 상품 페이지. [soletf.co.kr](https://www.soletf.co.kr) (<https://www.soletf.co.kr/ko/fund/etf/211064>)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8. 미국 투자회사법 제19조(a). 미국 연방정부간행물국. [govinfo.gov](https://www.govinfo.gov)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3-title15/html/USCODE-2023-title15-chap2D-subchapI-sec80a-19.htm>)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9. 미국 연방규정 17 CFR 270.19a-1, 「운용회사의 배당 지급에 동반되어야 하는 서면 진술서」. [ecfr.gov](https://www.ecfr.gov) (<https://www.ecfr.gov/current/title-17/chapter-II/part-270/section-270.19a-1>)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운용국, 「Shareholder Notices of the Sources of Fund Distributions」, IM Guidance Update 2013-11. [sec.gov](https://www.sec.gov) (<https://www.sec.gov/divisions/investment/guidance/im-guidance-2013-11.pdf>)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운용국, 「SEC Yield for Funds That Invest Significantly in...」, Accounting and Disclosure Information 2022-12. [sec.gov](https://www.sec.gov) (<https://www.sec.gov/investment/accounting-and-disclosure-information/performance/sec-yield-funds-invest-significantly>)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2. 미국 연방규정 17 CFR 230.482(광고 규정). [ecfr.gov](https://www.ecfr.gov) (<https://www.ecfr.gov/current/title-17/chapter-II/part-230/section-230.482>)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3. Global X Funds, QYLD·XYLD·RYLD 19a-1 통지문(2024년 10월 21일 기준일 등). [globalxetfs.com](https://assets.cms.globalxetfs.com) (<https://assets.cms.globalxetfs.com/19a-notice-QYLD-10.21.2024.pdf>)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4. Global X Funds, 「Covered Call Tax Primer」 (2024년판). globalxetfs.com  
([https://assets-cms.globalxetfs.com/Covered\\_Call\\_Tax\\_Primer\\_2024\\_1a1a7f27df.pdf](https://assets-cms.globalxetfs.com/Covered_Call_Tax_Primer_2024_1a1a7f27df.pdf))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5. Global X Funds, 연차보고서(Form N-CSR), 회계연도 202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sec.gov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32353/000093041326000081/c114720\\_nsr.htm](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32353/000093041326000081/c114720_nsr.htm))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6. Global X Funds, QYLD·XYLD·RYLD 상품 페이지(2026년 6월 30일 기준 성과).  
globalxetfs.com (<https://www.globalxetfs.com/funds/qyld>)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7. J.P. Morgan Asset Management, ETF 제19조(a) 통지문(2025년·2026년) 및 상품 자료.  
am.jpmorgan.com (<https://am.jpmorgan.com/content/dam/jpm-am-aem/americas/us/en/supplemental/section-19-notices/2026-19a-notice-etfs.pdf>)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8.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 「Opening Up About Closed-End Funds」, 2023년 6월 28일. finra.org (<https://www.finra.org/investors/insights/opening-up-closed-end-funds>)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교육국, 「Publicly Traded Closed-End Funds」 투자자 안내, 2020년 9월 25일. investor.gov (<https://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general-resources/news-alerts/alerts-bulletins/investor-bulletins/investor-bulletin-publicly-traded-closed-end-funds>)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20. 서울경제(2026년 5월 11일) · 분배율 산식 혼재와 표시 기준 부재
21. 한국경제(2024년 7월 26일), 녹색경제신문(2024년 7월 29일) · 커버드콜 소비자경보 교차 확인
22. 녹색경제신문(2024년 9월 23일) · 상품명 표기 규제 확인
23. 서울경제(2026년 1월 22일) · 증권사 집계 연령대별 매수 비중
24. 한국경제(2026년 1월 18일), 한국경제TV(2026년 7월 31일) · 월배당 상장지수펀드와 전체 시장 규모 교차 확인
25. KB금융그룹, 「ETF 세금 가이드」. kbthink.com (<https://kbthink.com/etf/etf-tax.html>)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 각주

1.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6-12호. 2022년 말 6종목 1,223억 원, 2026년 5월 말 50종목 24조 5,490억 원이다. 200배는 두 값으로 연구소가 계산했다.
2. 코스콤 집계를 인용한 언론 보도다. 2026년 1월 18일 기준이다.
3.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인용한 언론 보도다. 2026년 6월 말 기준이다.
4. 삼성자산운용 월간 상품 자료(2026년 7월 31일 기준).
5. 기초지수 이름과 연간 분배 한도는 각 운용사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했다.
6.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6-12호. 자본 환급의 정의와 공시 관련 제안이 함께 실려 있다.
7. Global X Funds, 「Covered Call Tax Primer」 (2024년판). 2022년 분배금 주당 2.1881달러 가운데 1.7837달러가 원금 반환으로 처리됐다.
8. 미래에셋자산운용 안내글(2025년 9월 8일). 해외 고분배 상품을 다룬 글이다.
9. 삼성자산운용 공지(2025년 4월 22일).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상품에 한정된 안내다.
10. KB자산운용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상품 페이지(2026년 7월 31일 기준일).
11.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네 곳의 상품 페이지와 분배금 공지를 확인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12. 미국 투자회사법 제19조(a). 원문은 "지급에 그 재원을 충분히 밝히는 서면 진술서가 동반되지 않는 한"이다.
13. 미국 연방규정 17 CFR 270.19a-1. 재원 세 갈래는 순투자이익, 자산 매각 이익, 납입자본 등 자본 재원이다. 추정치로 적을 수 있고 크게 어긋나면 정정하게 돼 있다.
1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M Guidance Update 2013-11.

15. Global X Funds 19a-1 통지문(기준일 2024년 10월 21일). 각 상품 회계연도는 10월 말에 끝난다. 규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확정치는 세무 서식으로 따로 통지된다.
16. 같은 통지문의 문구다.
17. J.P. Morgan Asset Management의 2025년·2026년 통지문에 해당 두 상품이 들어 있지 않다. 같은 운용사의 다른 신규 상품 두 개는 분배금의 97% 이상이 순투자이익을 넘어선 것으로 통지됐다.
1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Accounting and Disclosure Information 2022-12. 산식의 근거 조문은 광고 규정과 등록서식에 있다.
19. 미국 연방규정 17 CFR 230.482(d). 광고에 수익률을 적으면 총수익률을 함께 적게 하고, 총수익률은 직전 분기까지의 값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0. Global X Funds 상품 페이지(2026년 6월 30일 기준). 같은 날 S&P500 커버드콜 상품은 분배율 11.58%에 표준 수익률 0.51%, 러셀2000 커버드콜 상품은 11.55%에 0.57%였다.
21.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 발표 기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2. 2024년 7월 28일 소비자경보다. 두 매체에서 교차 확인했다. 발령 배경으로 커버드콜 순자산이 2023년 말 7,748억 원에서 2024년 6월 말 3조 7,471억 원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함께 제시됐다.
23. 2024년 9월 발표, 같은 달 시행이다.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
24. 삼성자산운용 월간 상품 자료 8종(2026년 7월 31일 기준). 차이는 연구소가 계산했다.
25. Global X Funds 연차보고서(회계연도 2025, 2025년 10월 31일 기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대상 자료다.
26. 두 연평균 수익률을 각각 10년 적용해 연구소가 계산했다. 세금과 추가 매수는 넣지 않았다.
27. 증권사 한 곳이 6개월 동안의 개인 매매를 집계한 값이다. 상품 한 종에 대한 집계라는 한계가 있다.
28.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된다. 과세 대상은 분배금과 과세표준 증가분 가운데 작은 쪽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        |                                                                       |
|--------|-----------------------------------------------------------------------|
| 제목     | 커버드콜 분배금 재원은 국내 공시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
| 시리즈    | 넥서스 리서치 2026_04 · NEXUS Research 2026_04                              |
| 발행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8월 13일                                            |
| 자료 기준일 | 2026년 8월 13일                                                          |
| 인용 형식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커버드콜 분배금 재원은 국내 공시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넥서스 리서치 2026_04, 2026. |
| 수정 이력  | 2026년 8월 14일 · 자본환급 추정치와 최종 세무 분류의 차이 교정                              |
| 누리집    | nexusfmi.com                                                          |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